

《눌변가》

2020. 5. 19-6. 20

d/p

참여작가

노은주, 무진형제, 이윤이

기획

신지이

그래픽디자인

강경탁(a-g-k.kr)

주최

d/p

주관

새서울기획, 소환사

협력

아트 스페이스 풀

후원

우리들의낙원상가, 서울문화재단

《Fluent Stutter.》

2020. 5. 19-6. 20

d/p

artist

Rho Eunjoo, Moojin Brothers, Yi Yunyi

Curator

Shin Jiyi

graphic design

Kang gyeongtak(a-g-k.kr)

hosted by

d/p

organized by

saeseoul society, sohwan

cooperated by

Art Space Pool

sponsored by

Nakwonmusic,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흔жат말을 더듬는 이는 드물다. 더듬어 말을
별는다는 것은 말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긴장된
공백이 침투하는 것, 갑작스러운 모호함을
맞닥뜨리는 일이다. 흔жат-말이 말-하기로
이동하면서 떨리고, 반복되고, 멀어지다 급기야
사라져 버리면 말의 목적이 성급히 달성되는 것을
잠시 지체시킬 수 있다. 그때 말은 결길로 새기도
하고, 상념이 튀어 오르는 것을 허락하며, 어떨 때는
너무 선명해서 더듬어 감각하게 한다. 더듬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상대의 한없는 여지를
발견하는 곳. 단언하지 못하는 사람, 말의 빈자리가
많은 사람, 우회하는 사람, 행간이 많은 사람, 그렇게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가장자리(邊).
《눌변가》는 '흔자'가 '하기'가 되는 순간 말에
벌어진 사건 안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보고자 한다.

언어의 과잉-파동

이윤이의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놓인 정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틀며 전개된다.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였다”, 내레이션의 첫 문장은 등장인물이
서로를 처음 의식한 외딴 산을 여행지로, 그들을
'우리'로 인식하게 한다. “말간 목덜미”를 내놓은
“단발머리”라는 묘사가 등장인물의 모습과 꼭
같으니 시작은 순조롭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여행은 정말이지 계획으로만 그쳤거나 그저 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장소가 전환되어 있고, 두 사람은 다수의 목소리, 화자, 문체,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내(my)”와 “네(yes)”가 같은 것으로 들리나 사실은 굉장한 오해인 것처럼, 보이고 들리는 표면적인 것들에 의심의 가치를 친다. 작가는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인물의 현전을 암시하는 대화와 물건과 묘사들, 그로부터 떠오르는 단상, 음악과 기억, 움직임을 중첩했다. 어떤 부분은 바로 알겠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야기는 조각조각 발화된다. 그는 정말 “쌍둥이”일까? “노래”는 왜 멈춘 것일까?

〈메아리〉(2016)는 에코(Echo)와 나르키소스(Narcissos) 신화를 레퍼런스로 삼았다. 애달픈 마음으로 목소리로만 남은 채 타인의 말을 반복하게 된 에코는 여전히 나르키소스의 말을 속절없이 따라 할 뿐이고, 손에 닿으면 사라지는 존재를 갈구하는 나르키소스 역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게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메아리는 던져진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 다시 되올려 온 소리이다. 상대와 ‘접촉’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그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반영인 메아리는 주체와 타자의 섞여 들어감, 아니 섞여 있다는 환각으로 낚는다. 전시장 벽을 타고 공간을 울리는 토속적인 민요와 진동하는 기타음이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손에 닿을 듯 느껴지는 것처럼, 꿈속에서 꿈인 걸 알아채 버린 생생한 “자각몽”처럼.

이 짧은 여행기는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파편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론에 도달해도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리에게 거리를 둔 채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들과 끝끝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단어의 조각들이 있다. 이윤이의 말하기는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접을 수 없는 타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넘쳐흐른다. 닿고자 하는 마음 참지 못해, 흘러서, 번져서, 애달픈 두근거림으로.

*〈메아리〉의 스크립트에서 인용한 문장과 단어들을 큰따옴표로 묶었다.

사라짐의 서사-감탄사

노은주가 줄곧 관심을 가져온 대상들에게는 별다른 이름이 없다. 이름이 붙여지길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탈각된 것들이다. 작가는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 대상들로부터

풍경을 인지하고 그 찰나의 경험을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베란다나 창문, 불빛조차 아직 채워지지 않아 그저 높은 기둥일 뿐인 아파트가 해가 지면서 땅거미와 함께 풍경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15년에 그린 〈야경〉은 매일 다니던 길에 느릿느릿 세워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시간이 흐르며 주변의 인상을 뒤바꿔버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낮과 밤 사이, ‘어스름’에 덮인 아파트는 작가가 마음을 쓰는 풍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느낄 수 있다. 작가의 시간성은 〈녹는형태연습〉(2017)과 〈Dropping〉(2020)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무엇인가 끈적하게 녹아내려 물체의 전신을 덮어버리고, 좁은 구멍 사이로 액체가 뿔어져 내려 바닥에 쌓여 있는 이 ‘과정’의 조형들은 감각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더욱 촉각적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노은주의 회화적 제스처는 그의 작업 태도에서도 엿보인다. 작가는 꽤나 지난한 우회와 과정을 거치는데, 시선에 잡힌 풍경을 재빠르게 드로잉으로 기록하고, 다시 손으로 더듬으며 조각으로 만든 뒤에 비로소 캔버스 위로 옮긴다고 한다. 말을 입안에서 고르다 묵직하게 뱉어내는 늘변가처럼 중간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라짐을 향해있는 그의 조형이 고정된 상태가 아닌 ‘흐르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다.

노은주의 회화를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언어는 감탄사였다. 아직 말이 되지 못한 탄식, 폭하고 새어 나온 조음, 감각에 바로 작용하는 언어. 무엇도 온전히 설명하거나 주장하지 못하지만, 발화 행위 자체로 존재에 의의가 있는 감탄사는 명징한 언어의 앞 또는 뒤에 위치한다. 작가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과정의 풍경은 감탄사와 같이 고정된 세계의 앞과 뒤에서 그 너머의 물렁한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반복-전복의 언어

무진형제의 <여름으로 가는 문>(2018)은 두 개의 영상과 설치, 텍스트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왼쪽의 영상은 씬 없이 줄넘기를 넘는 성장기의 한 소년을 조명한다. 화면 가득 포착된 땀에 젖은 셔츠와 바깥 마른 사마귀의 시선이 지독하게 더운 여름의 한 계절을 오롯이 느끼게 하고, 줄넘기의 줄이 공간을 가르고 아스팔트 바닥을 쳐 낼 때 발생하는 소리가 조용히 신경을 긴장시킨다. 오른쪽,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상 그래픽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일렁인다.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아득히 크고 멀리서 흐름을 전하고 있는데, 바람 한 점 보이지 않는 공원의 날씨와는 대조적이게 이곳의 속도는 제법 분주하다. 아득함은 물리적인 공간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측정 불가능한 마음의 거리를 묘사할 때도 적당하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그냥 하는 거야”. 물음에 대한 회피의 대답이 전시장 벽에 손글씨로 새겨져 있다. 외형적으로는 다 자란 어른처럼 보이지만 소년은 다른 이들의 물음에 미숙한 부정의 말들만 뱉을 뿐이었다. 무진형제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의 발화가 다른 방식으로 솟구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4,000개의 줄넘기는 단순히 ‘그냥’으로 넘기기 어려운 어떤 수행 혹은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정서적 긴장은 근경에서 부감으로 이어지는 시선, 생경한 시공간의 낙차, 뜯기고 깨져버린 타일에서도 발생한다. 각각의 요소들은 말의 빈자리를 채우는 신체적 징후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다. 덕분에 언어가 지극히 배제된 채 행위의 결과인 소리와 땀, 그로부터 연상되는 냄새와 같이 청각, 시각,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이 고조되어 언어가 아닌 몸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고 발화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게 한다. 전시장의 소란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어느 순간 그를 제외한 다른 세상이 지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 말더듬기는 “세계 너머를 훔쳐 볼 수 있도록”¹해주는 언어, “언어를 한계까지 끌고가는 형식”²이었으며, 그러한 뒤틀림, 변주로부터 새로운 잠재성이 나온다고 여겼다. 제목으로 더듬거리는 말씨를 뜻하는 늘변에 ‘가’를 붙여 늘변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家)과 늘변의 노래(歌)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위의 반복이 언어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영상, 정교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언어가 그 의미를 초월해 가는 과정, 공백이자 그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았던 감각들을 길게 뽑아내어 말이 안에서 머무는 순간, 말하기의 다른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신지이(기획자)

1 장자크 르세르클, 『들뢰즈와 언어: 언어의 무한한 변이들』, 이현숙, 하수정 옮김(서울: 그린비, 2016), 388.

2 같은 책, .380.

FLUENT STUTTER

2020. 5. 19(화)
- 6. 20(토)

May 19 (Tue)
- June 20 (Sat), 2020

d/p

노은주, 무진형제, 이윤이
Rho Eunjoo, Moojin Brothers, Yi Yunyi

기획: 신지이
Curator: Shin Ji-yi

d/p

the
seoul
society

도원사

Pool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